

전남 사업체 4900개 늘어 '증가폭 전국 3위'

통계청, 2019년 전국 사업체 조사

광주·전남 최근 10년새 6만개 늘고 종사자 36만명 증가

최근 10년 동안 광주·전남 사업체 수가 6만개 (27.5%) 늘어나고 종사자 수는 36만명 (3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남 사업체·종사자 증가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보고서에 담겼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체 수는 광주 12만3631개·전남 16만1823개 등 28만5454개로 집계됐다. 광주 사업체는 1년 전(11만9617개)보다 4014개 (3.4%) 증가했고, 전남은 전년보다 4909개 (3.1%) 늘었다.

전국 사업체 수는 417만5286개로 1년 전보다 7만2114개(1.8%)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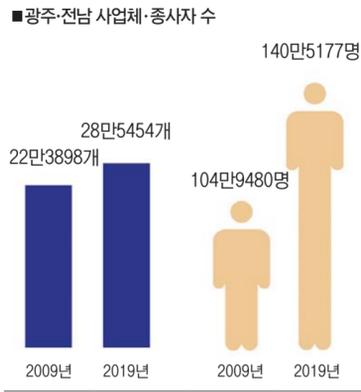
전국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3.0%,

전남 3.9%이다. 서울·인천·경기 사업체 수는 196만3796개로, 절반 가까이(47.0%)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체 증가 수를 전국 17개 시·별로 보면 경기(2만5165개), 경남(4986개)에 이어 전남이 세 번째로 크게 늘었다. 전남은 사업체 종사자 증가 폭 역시 전국에서 세 번째(4만118명)를 기록했다.

광주 사업체 수는 지난 2011년 처음 10만개를 넘긴 뒤 2014년 11만1285개에 이어 지난해 12만개를 넘겼다. 전남은 지난 2013년 처음 13만개를 돌파하고 2014년 14만2931개, 2017년 15만3280개에 이어 지난해 16만개를 넘겼다.

광주·전남 사업체 수는 10년 전인 2009년(22만3898개)에 비해 27.5%(6만1556개) 증가했다. 올해 광주·전남 사업체 종사자 수는 140만5177



명(광주 63만명·전남 77만명)으로, 처음 140만명을 돌파했다. 1년 전보다는 4.1%(5만4987명) 증가했고, 10년 전(104만9480명)에 비해서는 33.9%(35만5697명) 늘어났다.

전국 사업체 종사자는 지난해 기준 2271만6910명으로, 전년보다 48만2134명(2.2%) 증가했다.

전국 사업체 대표자를 연령대로 보면 구성비가 가장 큰 세대는 50대(34.6%·144만4823개)다. 전년 대비 2만7517개(1.9%) 증가했다. 20대 이하가 대표적인 사업체(10만8456개)는 1년 전보다 4712개(4.5%) 늘어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30대가 대표인 사업체(52만6770개)는 2910개(0.6%), 40대가 대표인 사업체(113만3410개)는 2219개(0.2%) 각각 늘었다.

통계청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벌인 조사 확정결과는 내년 2월 말에 발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820.51 (+11.91)
↑ 코스닥	957.41 (+30.41)
↑ 금리(국고채 3년)	0.973 (+0.015)
↓ 환율(USD)	1092.10 (-4.60)

우수 중기 87곳 발굴 257명 일자리 매칭 완료

광산업진흥회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일하기 좋은 기업 87개사를 발굴하고 257명의 일자리 매칭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진흥회는 우수한 중소기업에도 정확한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취직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했으며, '손에 잡히는 채용정보지'와 우수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코로나19로 취업박람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진흥회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시스템 '광주잡넷'을 활용해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 4차례에 걸쳐 257명의 취업 연계를 도왔다.

앞서 맞춤형 인력재용 지원을 목적으로 인공 지능(AI) 역량연계 시스템을 구축했고,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용권도 지원하는 등 높은 비용 탓에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해소하고 있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과 구직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적극 대처해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코로나시대 대비 '인적쇄신'

영업통 전진 배치·디지털 강화...대대적 조직 정비로 새해맞이

조원기 부행장보는 양산동 지점장과 서울영업부장을, 이우경 부행장보는 여수지점장과 영업부장을, 양성현 부행장보는 투자금융부장 등을 거치면서 영업력을 인정받았다.

광주은행에서 투자금융부장을 맡다가 합병한 전북은행에서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이달호 부행장보는 이번 인사에서 전진으로 돌아왔다.

조계준 부행장보는 인사지원부장 겸 종합기획부

장을, 이광호 부행장보는 문화전담지점장과 검사부장을 역임했다.

올해 말 임기 만료되는 9명 중 3년 이상을 채운 5명은 예외 없이 교체됐다.

부행장인 이동수 경영기획부장 겸 재무부장을 비롯해 정찬암 영업전략부장, 김경태 영업2부장, 안영수 수도권사업부장, 서상인 준법감사인이 물러났다.

2016년에 임원을 단 이 부행장 등 2명은 5년을, 나머지 3명은 3년, 서감시인만 2년을 채웠다.

임원 인사와 함께 신입 부점장으로 이관형 영업지점장 등 33명이 승진했다. 이호영 담양지점장 등 여성 부점장 10명도 발탁했다.

한편 송중욱 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3월 까지로, 연임 여부는 다음 달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업무 능력, 열정, 대내외 평판을 두루 고려해 고객 중심 은행을 이끌 적임자를 발탁했으며 각 임원의 장점을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인적쇄신에 들어갔다.

광주은행은 29일 임원급 부행장(보) 8명을 승진, 선임하는 등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관련 인사 21면>

올해 퇴임하는 부행장은 총 6명으로, 한 해 평균 임원 2~3명이 물러나고 지난해 임원 12명 전원이 유입된 것과 비교하면 '물갈이'에 가까운 인사라는 평가다.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는 JB금융지주 상무 출신인 박중훈(51) 부행장보와 한영구(56) KB캐피탈 여신운본부장 겸 전무 등 2명이다. 이들의 역할은 각각 디지털본부장과 여신지원본부장으로, 디지털 활성화와 기업 대상 영업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 전무 승진 인사 정민식 호남그룹장 등 2명



하나은행이 연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가운데 전무 승진 2명 중 호남인사가 포함됐다.

29일 하나은행은 정민식(57·사진) 호남영업그룹장 겸 광주전남영업본부장을 전무로 승진시키는 등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외 김기석 서초영업본부장은 중앙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무로 승진했다.

정민식 그룹장은 호남대 행정학과와 UC버클리 하스스쿨 글로벌경영을 마치고 하나은행 금남로지점 VIP PB부장, 광주지점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7년 1월부터 호남영업그룹장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새해맞이 집 청소소독까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에서 새해맞이 집 단장 청소 용품으로 다목적 세정제,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을 선보이고 있다. 생활용품 브랜드 '생활공작소'는 입점 기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전품목을 1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 제조업체 내년 1분기 경기전망 개선

철강·금속 '맑음'...IT·시멘트 '흐림'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전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3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가 전분기(66)보다 5포인트 상승한 71로 집계됐다.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으나, 백신 개발에 따른 코로나 19 진정 기대감 등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서서히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4분기 실적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입 부진 등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했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라 전 분기보다 18포인트나 상승한 80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지난해 4분기(7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반적인 경제흐름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

과에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33.6%(44개사)로 가장 높았고, '올해보다 다소 악화될 것'(31.3%, 41개사), '다소 호전될 것'(30.5%, 40개사), '매우 악화될 것'(3.8%, 5개사) 등 순이었다.

업종별 전망을 보면 '철강·금속가공'(44~85)과 '기계·금형'(61~86) 등 업종의 전망치가 크게 개선됐다. '자동차부품'(65~81)은 개세에 인화 연장과 해외 판매 호조 등으로 체감경기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IT·가전'(84~79)은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등 계절가전의 비수기 진입에 경기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리·시멘트·콘크리트'(100~33) 역시 건설업 비수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착공 지연,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경기악화를 예상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lovelyline4u.com

신세계 선이고운치과교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0(농성동) 밝은클리닉 5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천변방향
T. 062) 367-2279 | F. 062) 367-2280

■ 원장 | 교정전문의 이기현 | 김고운

www.chhospital.com

시엘병원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시험관아기기술 · 복강경수술

서구 무진대로 957번(광천동)
대표전화 062.368-1700

건강한 생명, 행복한 미래

전남대학교병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원장 안영근

통합콜센터 1899-0000
응급의료센터 062.220-6801

CHOSUN UNIVERSITY HOSPITAL

조선대학교병원

병원장 정종훈

■ 대표전화 062)220-3114 ■ 종합건강검진센터 062)220-3030
■ 진료예약 062)220-3006, 3009 ■ 진료협력센터 062)220-3989
■ 권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 홈페이지 https://hosp.chosun.ac.kr

중앙병원

심장내과, 신장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인공신장실, 재활한방과

내과전문의의약품사 내과전문의의약품사
이강수 홍순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4(화정동)
T. 062.456-6600 F. 062.456-6601

마음까지 치료하는 더 큰 사랑

침던중합병원
CHEOMDAN MEDICAL CENTER

병원장 양원호

■ 광주광역시 광산구 침던중합로 170번길 59(쌍암동 665-1)
■ 대표전화 : 062)601-8000 응급의료센터 062)601-8119
■ 홈페이지 : www.cheomdanhosp.co.kr